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

(열왕기상 3:16~28)

23.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악함에 의해 강요되는 어리석음'

007 시리즈 중에 2008년에 개봉된 "퀀텀 오브 솔루스(Quantum of Solace)"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던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이 악당을 물리치는 최후의 혈전이 사막 한 가운데 세워진 호텔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호텔 전체가 파괴되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최종 승리를 쟁취한 007에 의해서 악당은 사막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악당의 손에 자동차 엔진오일 한 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서 그 유명한 악당의 시신이 사막에서 발견됐는데 뱃속에 엔진오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마십니까? 바보도 자동차 엔진오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환경에 처하면 액체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이 얘기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영화 전체로 보자면 이 내용은 큰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이 자동차 엔진오일을 마시도록 강요했던 것인데 환경에서 강요된 어리

석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첫 번째 재판을 해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또한 어리석음과 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사실 '지혜'라는 말을 하지만 무엇이 지혜인지 딱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또 어리석음도 어디까지가 어리석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의 상대성이론이라고나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상대적으로 다 어리석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움도 무엇이 지혜로움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고 어리석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천 가지, 만 가지, 백만 가지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모든 어리석음에는 한 가지 공통된 본질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 줍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국면이 있는데 돈 인간관계 건강 일 가족 등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도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경우의 어리석음이 악함에 의해서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에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자비한 마음으로 불교가 지옥을 설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옥을 '자비지옥'이라고도 하며 이 지옥에는 희망조차 있는데 자기의 빚을 다 갚고 나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들을 지도하여 성불시킬 때까지 지옥에 머물겠다고 할 정도인데 아주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휴머니즘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지구에서부터 지옥을 삽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지옥이 있습니다. 그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옥의 시작은 지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불교와 비슷하게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은 악함에 의해 강요된 어리석음입니다.
사막이 엔진오일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악함에 의해서 강요된 어리석음으로 지구에서부터 지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지혜나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증인이나 외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간의 본원적인 심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결에 자기 몸으로 자기의 아기를 압사시킨 창기가 옆에서 자고 있던 동료 창기의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합니다.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일어나서보니 죽은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동료 창기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서 시치미를 떼는데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 당시에 이 아기의 엄마가 기절초풍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함을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의미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예를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차원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창기는 어리석음의 대표주자로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악함에 의해서 강요되는 어리석음의 내용입니다. 돈이나 인간관계 같은 어떠한 삶의 관계든지 어리석음이 표현 될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창기는 아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아기를 내가 소유하느냐 잃느냐의 문제로 대체시켰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를 파는데 하나가 팔리고 나면 직원이 와서 빈자리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이렇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꾼 여자의 이 어리석음의 허를 찌르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엄마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진짜 엄마와 구경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소유의식에 사로잡힌 논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에 휘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판결은 가짜 엄마가 벌여놓은 소유 가치의 논쟁의 급물살로부터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그 논쟁으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창기는 모든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음의 모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늘 염려걱정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시기질투로 지옥인데 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소유의 가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생명의 가치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소유의 가치에 매달려서 논쟁하고 경쟁하고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범하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이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꿨음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육체적으로는 목숨을 얘기하지만 인격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죽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생명은 살아야 될 근거를 말하고 이 근거는 만족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돈 취직 성과 승진 자녀 인기 인정 권력 목사님들

은 수적인 부흥 크고 화려한 예배당 등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입니까?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아무 것으로 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백을 채워서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데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흡입력이 바로 삶을 살게 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특별히 에덴의 타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끊어짐, 죽음은 마음의 공백을 채울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상태 즉 산송장이 된 것인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진 것인데 이것이 악함입니다.
아주 훌륭한 유교의 유학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삼강오륜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덕목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버리면 패륜아인 것을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패륜아인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가장 악한 것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멸시하거나 내쫓거나 길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함이고 그 악함은 어리석음을 강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 채로 살 수가 없기에 무엇으로든 채워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강요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이러한 강요를 받을 때에 마음에 염려 불안 걱정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고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돈에서 찾게 됩니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죽었으면 그 사실에 대해 통곡을 하고 혼절을 해도 부족할 판에 냉철하게도 동료의 아기와 자기의 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 것이냐 네 것이냐를 따지다가 솔로몬이 칼로 양분하라고 하니 공평하다고 여기는데 소유의식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소유의식으로 인해 벌어진 논쟁에 사로잡혀 있다가 생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논쟁을 뚫고 나옵니다. 이렇듯 인간의 어리석음은 전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도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마음의 공백이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돈이 안 벌려서 화가 난다면 사실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마음의 불안을 돈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그렇고 직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소유했느냐 아니냐는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유로 바꾸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엔진오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 숫자를 늘려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교인이 많아져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들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에서 사업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승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다 보면 승진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함 때문에 어리석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진채로 소유의 문제로 마음의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존재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소유에 불과합니다.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을 많이 하지만 무엇이 만족과 기쁨의 이유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셔 들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정신적 활동 가능성을 활용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돈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수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정신활동을 강화시키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슐라이어마허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존재의 근거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이신교를 주장했고, 칸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신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기쁨의 근거로 삼으려고 소유의 가치로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지혜의 정의를 내리자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는 상태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리석음은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에 가 있으면서 하는 모든 생각입니다.
고전1:22~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강요된 어리석음을 죽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려는 순간에 죽음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자리까지 끌어 올리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십니다.
모든 방면의 문제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는 어

리석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소유를 당겨서 흡입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면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강요된 어리석음의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마음의 공백을 소유로 채우려하는 어리석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혜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강요된 어리석음으로 인한 지옥의 삶을 탈출하여 샬롬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